



비 개인 날 섭지코지 풍경 비가 그친 12일 서귀포시 성산을 섭지코지를 찾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바닷바람과 더불어 탐방로를 걸으며 한여름 바닷가 풍광을 즐기고 있다. 이상국수습기자

정계개편 회오리 속 제주서도 세 구축 분주

내년 21대 국회의원선거 8개월 앞뒤 정가 '술렁' 대결구도 확정시까지 예측불허... 전열정비 본격

내년 4월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이 분당수순을 밟으며 정계개편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정가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전개될 정치 지형도에 맞는 진용을 구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도내 주요 정당 등에 따르면 현재 대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우리공화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들어 민중당 도당이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제주지

역에서는 7개의 정당이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향해 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정당별로 모두 후보를 낸다는 보장은 없다.

3김시대가 시작됐던 제13대(1988년) 선거 당시 제주지역 정당은 민주정의당, 통합민주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 등 4개의 정당이 등록됐다. 이후 보수와 진보 진영의 양강체제를 중심으로 부침을 거듭하고 있다. 제18대때인 2008년 총선 당시엔 6개 당으로 늘어났으며 4년 뒤인 2012년(19대)에는 8개 정당이 대선관위에 적을 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정당명칭은 새누리당, 민주

통합당, 통합진보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한국기독교당, 국민행복당 등이었다. 제20대때는 새누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복지국가당만 등록됐다.

비당권파가 이날 집단탈당을 선언하고 나선 민주당이 분당의 길로 접어들며 향후 제주지역의 정당구도 재편에 이목이 집중되게 됐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역시 최근까지 내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의 새판짜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우선 분당의 중심인 민주당이 도당은 중앙당의 움직임에 따라 노선을 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른미래당 도당도 민주당의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여서 올 가을정국은 가열될 전망이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의 도당은 민주당화발 정계개편을 염두에 두고 진용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 경선에 참여할 권리당원을 모집하는데 문전성시를 이루며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고토회복을 위해 세력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병수 도당위원장을 선출한 정의당 도당은 첫 입성을 기약하며 세 구축에 힘쓰고 있다.

따라서 내년 국회의원선거에 맞춰 양당 공천 등을 준비하고 있는 정치지망생들의 행보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 일부 정당들의 존재 여부가 가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도정 주요 사업 정책실명제로 중점관리

공약사항 등 141개 사업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심의 결과

총 141개 사업을 선정하고, 8월부터 도 공식 홈페이지에 대상사업을 공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2009년부터 공개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약 400여 건이 선정돼 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도는 또 지난 5월 홈페이지를 개편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연도별로 구분하고, 부서 및 담당자를 명시하는 등

가독성을 높이고 있다.

2019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도지사 공약사항, 도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 선정 기준을 확대했다. 그 결과 공약사항 63건, 장·단기 계획 3건, 건설사업 26건, 연구·용역 사업 24건, 행사성 사업 24건, 자치법규 제정(폐지) 1건, 도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4건, 국정과제 11건, 기타 2건이 발굴됐다.

조성윤기자

2020학년도 대입 수능 일정 본격화

14일부터 상황실 운영
22일 ~ 9월 6일 원서 접수
도교육청, 관리체제 구축

다음주부터 대입 수능을 위한 원서가 접수되는 등 2020학년도 수능 일정이 본격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월 14일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을 위해 본격적인 수능시험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8월 14일부터 수능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관리본부는 교육감을 책임자, 부교육감을 부책임자, 교육국장을 본부장, 학교교육과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제주(95지구)·서귀포(96지구) 지구 책임자 및 지구별 상황실 요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는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도내 모든 고등학교 및 도교육청 원서접수처에서 이뤄진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출신) 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및 타시·도 졸업생 등은 도교육청 원서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특히 제주지역 출신이면서 수도권 지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9월 5일과 6

일 양일간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도교육청 직원을 파견해 현지에서 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제주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13년째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진행 중인 수도권 지역 원서접수는 전국 유일 사례다.

지난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도내 수험생은 모두 7500명이다. 재학생 6052명과 졸업생 1324명,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124명이 접수했으며, 졸업생 중 122명이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접수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제주네비게이션 AS센터
블랙박스 점검센터
(본죽사거리에서 바닷가 방향 세계로마트 내)
블랙박스 4채널 장착가능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가능
☎ 711-6544

2019 제주의 정신문화유산이자 상징, 전설의 섬
이어도 가자! 이어도 사나!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하는

이어도 문화의 날 기념

이어도 축제

마라도
서해물 149km

일시 2019년 8월 17일 (토) 15:00 ~ 20:00
장소 정부합동청사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시민광장
개회식 17:00

주최: **제주신문** 주관: 이어도축제운영위원회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어린이 대규모 체험부스
15:00 ~ 18:00
이어도 사생대회
15:00 ~ 16:30

개회식
(이어도 문화의 날 선포식)
17:00
이어도 청소년 페스티벌
17:00~

□ 시간: 15:00 ~ 16:30
□ 시상: 대상 - 교육감상 /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상금 및 상장수여)
□ 접수: 당일현장접수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내용 참조
□ 문의: 064) 744-7224

□ 모집기간 및 인원: 7월 26일(금) ~ ※ 개인·단체 신청순 20팀
□ 부문: 노래 / 댄스
□ 시상: 대상 - 도지사상 /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인기상(상금 및 상장수여)
□ 접수: 제주신문 홈페이지 - www.jejuexpress.co.kr
제주신문 이 메 일 - jejuexpress1@naver.com
fax. 064) 744-7226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 문의: 064) 724-7224

*** 특별건강검진센터운영(건강관리협회 주관·최신의료기 이용)**

이어도 문화의 날 선포식
2019. 8. 17. 15:00

이어도 문화의 날 기념
8월 17일 15:00 ~ 18:00

이어도 청소년 페스티벌
8월 17일 17:00 ~